

최가온, 설상 종목 사상 첫 금... '황금세대' 연 스노보드

최가온 '역전 드라마'... 스노보드 단일대회 첫 금메달 메달
2008년생 최가온-유승은, 4년 뒤 동계올림픽 더 기대돼
역대 최고 성적 낸 설상 종목 숙제... "국내 에어매트 설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사상 최고 성적을 낸 한국 스노보드 금메달을 열었다. 한국은 이번 대회 스노보드 종목에서만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을 하나씩 수확했다.

1960년 스쿼블리 대회부터 올림픽 무대에 도전해 온 한국 설상 종목의 역대 최고 성적표다.

대회는 동계올림픽에서 불모지로 불렸던 '스노보드'였다.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김상겸(하이원)이 은메달로 한국 선수단에 대회 첫 메달을 안겼다.

애초 이번 올림픽 메달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김상겸의 입상은 파란의 시작이었다.

이어 유승은(성북고)이 스노보드 여자 박에어에서 동메달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최가온(세화여고)이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설상 종목이 단일 올림픽에서 2개 이상의 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스노보드는 이 대회 전까지 안방

에서 열린 2018 평창 대회 때 이상호(넥센 원가드)의 남자 평행대회전 은메달이 한국 설상 종목의 유일한 메달이었다.

그런데 8년 만이 지나 이탈리아 알프스 산악 지역인 리비노에서 잠재력이 폭발한 것이다.

특히 최가온의 금메달 과정은 한 편의 영화였다.

최가온은 리비노 현지에서 심한 눈발이 날린 가운데 시도한 1차 시기에서 두 번째 점프를 하다 크게 넘어져 기권 위기에 몰렸다.

의료진이 긴급 투입된 뒤 최가온의 몸 상태를 살피고, 다행히 스스로 일어나 경기장을 내려왔다.

2차 시기는 기권할 거란 전망 속에 최가온은 무릎 통증을 참고 감행했으나, 또 다시 점프를 시도하다 미끄러지며 그대로 대회를 마치는 듯했다.

하지만 최가온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3차 시기에서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며 대역전극을 완성했다.

12명 중 10위에 처했던 최가온은 3차 시기에서 90.25점을 받아 단숨에 1위로 도약했고, 이전까지 선두였던 클로이 김



스노보드 여자하프파이프 금메달리스트 최가온.

(88.00점 미국)이 3차 시기에서 미끄러지며 최가온의 금메달이 확정됐다.

한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 첫 번째 금메달이자,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올림픽 우

승이었다.

아울러 클로이 김이 2018 평창 대회에서 세운 이 종목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 기록(17세 10개월)을 17세 3개월로 당겼다. 최가온과 클로이 김의 명승부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최가온의 금메달은 미국 NBC가 선정한 대회 전반기 10대 뉴스에, 미국 매체 에슬레틱이 뽑은 전반기 7대 명장면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두 번 넘어지고 금메달을 딴 최가온은 귀국 후 정밀 검사에서 손바닥뼈 3개가 부러진 상태로 대회를 뒀던 것이 알려지면서 더 큰 화제를 불러오기도 했다.

또 4번째 올림픽 만에 은메달을 목에 건 김상겸과 부상 약재를 들고 동메달을 딴 유승은의 이야기도 많은 이에게 감동을 줬다.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을 낸 한국 설상의 미래는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이번 대회 설상 종목에서 입상한 세 명의 메달리스트 중 2명이 2008년생이기 때문이다. 최가온과 유승은은 4년 뒤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다룰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다만 여전히 열악한 국내 설상 훈련 환경은 개선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국내 설상 종목 환경이 나아졌지만, 사계절 국내 훈련은 아직도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최가온도 금메달을 딴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여름에도 훈련할 수 있는 에어매트 시설이 있는데, 한국은 없다. 이제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에어매트는 눈이 없을 때 점프와 회전 등 공중 동작을 익힐 수 있는 시설로, 고난도 공중 동작을 펼치는 설상 종목엔 비

슷 꼭 필요한 훈련 장비다.

설상 강국인 미국은 물론 아시아에선 일본과 중국 등이 에어매트 훈련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 에어매트가 없는 한국 선수들은 비시즌마다 장기간 국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이번 올림픽 결산 기자회견에서 "최가온이 설상 종목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땀지만, 들여다보면 실상은 에어매트 하나 없는 곳에서, 해외를 돌아다녀 딴 금메달이다. 불모지에서 금메달을 딴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훈련 시설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훈련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윌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커뮤니티인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무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세무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선수촌만 6곳’ 명암 뚜렷했던 사상 첫 분산 개최

비용 절감·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 관심도 저하는 숙제로 남아

역대 올림픽 중 가장 넓은 지역에서 분산돼 치러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23일(한국 시간) 17일 간의 열전을 뒤로 하고 막을 내린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사상 최초로 대회 명칭에 두 도시 이름이 들어갔다.

설상 종목 경기장이 산악 지형을 필요로 하는 특성 때문에 이전에도 빙상 종목과 설상 종목이 서로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치러진 적이 있었지만, 대회명에도 두 도시의 이름이 동시에 들어간 적은 없었다.

크게 나눈 권역만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발텔리나·보르미오, 발디피에네 등 4곳에 달했다. 선수촌도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리비노, 보르미오, 프레다초, 안테르셀바 등 6곳으로 나뉘며 운영됐다.

아울러 성화도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에서 각기 타올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 여젠다 2020'을 통해 강조하는 지속 가능성과 비용 효율성을 실천하고자 이탈리아의 여러 지역에 나눠서 올림픽을 개최했다.

올림픽 관련 시설 건설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기존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했다. 이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도시에서 경기를 나눠 열어 부담을 낮추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비용 절감과 환경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단연 성과가 있었다.

3월 6일 개막하는 동계패럴림픽을 포함해 이번 대회에 쓰이는 25개 경기장 중 밀라노의 산타 줄리아 아이스하키 아레나와 코르티나 슬라이딩 센터 등 2개 뿐이고, 4개는 임시 시설을 활용했다.

아이스하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이 위치한 밀라노 아이스파크는 대규모 전시

장인 피에라 밀라노 전시장에 임시 시설을 지어 만들었다.

설상과 썰매 종목이 열린 코르티나담페초에선 1956년 올림픽 당시에도 썼던 토파네 알파인 스키 센터,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을 리모델링해 사용했다.

밀라노 올림픽 선수촌은 철도 차량 기지를 개조해 만들었으며 올림픽이 끝나면 대학교 기숙사 시설로 쓴다.

이탈리아 북부 각 도시의 교통을 비롯한 인프라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장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번 올림픽에서 주목 도시가 된 밀라노에만 인과가 물리는 것이 아니라 알프스 산악 지대 등 이탈리아 북부 도시가 전세계에 알려졌고, 방문객도 늘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핵심 목표로 이번 분산 개최를 추진했다. 2028년 돌로미티·발텔리나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도 이번 올림픽 유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번 분산 개최에 호응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커스티 코벤티리 IOC 위원장은 "이번 올림픽은 다수의 사람들이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공적인 대회"라며 "선수촌이 흩어져 있었지만, 모두 높은 수준의 올림픽 경험을 했다"고 총평했다.

그러나 단점과 한계도 명확했다. 워낙 넓은 지역에서 개최돼 경기장 간의 거리가 최대 수백 킬로미터에 달했고, 선수단 지원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해진 것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관중들도 이동에 부담을 느끼는 마냥가지였다. 올림픽이

열리는 장소를 찾아도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즐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비용과 환경 부담을 줄이고자 셔틀버스 등의 운영도 최소화하면서 관중과 미디어를 비롯한 올림픽 관계자들은 이동에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

일부 종목은 기상 변수와 교통 상황 때문에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도 있었다.

여러 종목이 넓은 지역에 나눠져 열리다보니 올림픽 분위기가 다소 반감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밀라노는 중심이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인근을 제외하면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인지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였다. "세계선수권대회보다 분위기가 살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이도 있었다.

이번 올림픽 기간 진행된 선수들의 투표를 통해 IOC 선수위원회 당선된 원운종은 "6개 선수촌을 모두 돌며 선수들을 만났는데, 환경이 매우 다르다. 안테르셀바에서는 바이애슬론만 치러져 선수촌이 없고, 4개 호텔을 묶어 선수촌처럼 구성했다"며 "선수들이 '올림픽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세계선수권대회를 뛰는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올림픽이 경쟁의 장이기도 하지만, 축제의 장이기도 하다. 선수들이 올림픽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벤티리 위원장도 이동에 대한 부담과 운영이 한층 복잡해지는 측면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올림픽 유치 경쟁이 이전같지 않은 가운데 분산 개최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IOC는 이번 올림픽을 치르며 나온 장단점을 전면적으로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뉴스